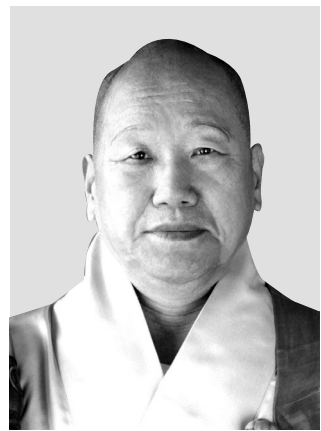


“이웃 아픔 껴안는 등 밝히고 영령들 왕생 발원을”

이웃을 위한 등을 밝히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니다. 사바에 몸을 나누시니 인간 세계가 환희에 젖음이요, 이로 좇아 억조 창생(億兆蒼生)이 활로를 찾음이라. 일곱걸음 걸음마다 연화장세계를 나뉘이요.

천상천하유아독존 일체개고아당안지(天天下唯我獨尊 一切皆苦我當安之)라 하시니, 이로 좇아 만 중생이 생사를 다해 마쳤고 지옥과 천당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고통이 안락으로 변해가 지혜로 돌아가며 사바에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주야로 빛을 발함이라.

집집마다 문을 나섬에 서울로 통하고 집집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맞이 함이로다. 사바에 서광이 처음 깃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날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혀 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가 어둠 하나 사바 또한 꿈과 환이거늘, 어찌 어둠과 밝음을 논하며, 마음을 밝히라 하나 이 마음은 본래로 밝아 있음인데 어찌 다시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부대중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불개고불삼천계(佛開古佛三千界)요
지출근생일편심(指出群生一片心)이로다.

옛 부처와 삼천세계를 잡아 엮이요,
뭇 중생의 한 조각 마음을 가리켜범이로다

정도(正道)의 세상 열어갑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종인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공양 예배합니다. 세사(世事)의 뭇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려 시공을 넘어서 나날이 여기 오시는 부처님의 원력에 동참하여 귀경합니다.

부처님은 청정하여 오고감이 자재하여 온 법계에 지혜와 자비를 두루 베푸시나 이 땅에는 여전히 아상이 물결쳐서 내 것 네 것 분별하여 다툼이 쉬지 않고 율고 그름 시비가 멈추지 못하니 부처님의 이타자리의 실천에 참여합니다.

지상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면 하늘의 달이 천강(天江)에 나타나듯이 중생의 심성에 부처님 곧 피워서 공익을 내세워서 사리를 채우는 비법의 관행을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정도 사회로 밝혀갑시다.

병고와 가난과 불화의 중생교(衆生苦)가 사바의 예토에 널리 가득할 때 진각종인이 진각의 종문을 높이 세우고 참회하고 심인 밝히는 법문을 베풀어서 율행(六行)을 실천하고 현세를 정화하는 은혜의 세상을 피신 뜻도 이와 같습니다.

툼비 동산에서 화신을 나타내어 생명 존중의 말씀을 짐짓 펴시켰으니 귀천이 세상살이에 걸림이 없고 빈부가 상생하여 공존하도록 군생이 동체대비의 큰 품을 열어서 온 세상이 밀업국토가 되도록 정진합니다.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차

남정 스님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수연기감마불주(隨緣起感靡不周)
이항처차보제좌(而恒處此菩提座)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따라 다달아서 두루 보살피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항상 보리좌에 계시네

분단 견어내고 생명 소중히 여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천상천하(天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은,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었으니,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바른 마음과 바른 노력으로 사납답게 살아가려는 축복의 순간을 열어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살아온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견어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일심으로,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종단은 공존과 상생, 그리고 합심이라는 3대 통일 방안을 제시해, 남과 북이 화합하고 하나 되자는 불교 통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신 200여 고승 대덕스님들과 30만에 이르는 불자들이 평화문 광장에 모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진화선 무차대회를 열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으며, 지구촌 모든 나라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최근 큰 슬픔에 처해있는 네팔 국민의 슬픔도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들이 어서 빨리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세월호가 남긴 상처가 아찌 채 아물지 못합니다. 어린 영혼들의 목숨과 맞바꾼 '안전한 나라', '생명이 영혼들의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라 의상스님은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천지의 요소가 함께 있고, 짧은 한 생각이라도 만년의 기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일생은 우리 모두의 역사와 무관치 않으며, 지금 우리의 한 생각은 미래 후손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본래 부처 성품을 구축합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의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바세계가 결코 어두운 세계가 아니고 희망의 빛이 함께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임을 정각으로 증명하시고 깨달음의 요체(要諦)와 대승의 방편으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구축하고, 만물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무명(無明)을 깨치고 탐욕과 번뇌에 묻힌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 혼자 뛰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나날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로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존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물질 추구와 배금주의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는 욕망으로 내몰아 생명을 경시(輕視)하고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며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災害)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만 잘살고 행복하면 된다는 배타적 이기주의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남을 이롭게 함이 나의 행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이웃도 보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온 세상에 환희와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만생명이 눈을 뜨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자리가 불성의 자리요, 우리 삶의 터전이 불국정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팔만 사천의 법문으로 열어 보이셨으니, 하루 속히 무명을 깨우쳐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생심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불타는 집안에서 중생농음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머니 속 보배구슬을 알지 못하며, 병고를 씻어줄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목이 말라도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을 자부하는 인간 세상에 단 하루도 전쟁과 테러와 살상의 폭력이 그치지 않고, 단 한 순간

도 거짓과 탐욕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건만, 폭력과 욕망의 수레에서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수레가 눈앞에 있어도 타지 않고, 칠보로 장엄된 자비의 수레를 반르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지혜의 눈을 뜨고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 나올 수 있고, 주머니 속 밝은 구슬을 꺼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이웃도 보입니다. 지금 네팔은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타의 등불'을 켜는 마음으로 네팔 돕기에 동참해 아름다운 불보살의 길로 나아가갑시다.



생명 하나하나에 동등한 진리세계 구축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비로자나 부처님의 찬란한 여명이 온 누리에 드리우고 그 자비와 온정이 일체유정을 감싸 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시며, 지혜의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자 모든 고락(苦樂)을 여의었습니다.

그앞에 선 자, 높고 낮은 지위가 없고, 크고 작음에 분별이 없으며, 청정자성(淸淨自性)의 보공(寶宮)이 되어 보고 듣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집착함을 여의는 대자재(大自在)의 인연은 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자대비의 큰 원력으로 승화되어 나와 너로 시작하는 시방삼세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수승한 가르침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결국, 과거 불은(佛恩)의 가르침을 잃고 눈앞의 이익에만 탐착하여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들을 넘지 못하며, 남의 불

행을 기회로 삼고, 남의 행복을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며, 본래의 청정한 자성(自性)을 망각한 채, 탐진치 삼독의 노예가 되어 두터운 업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본연의 자성은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이며, 일체가 본래 하나라는 본심(本心)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금 시방삼세를 초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본연의 청정자성을 밝혀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계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세상이 빛어내고 있는 깊은 갈등과 고난의 고리들을 끊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하나 하나가 그 존재의 가치로서 대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 수 있는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화쟁으로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우리와 부처가 하나의 진리체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상향의 세계는 대 자유, 대 평등, 대 평화와 화합의 맑고 밝은 현실정토 세계, 즉 부처의 세상이었으나 오늘의 우리는 무지의 업연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충추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없이 헤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값지고, 불교발전을 위해 크게 발원사(發憤誓願)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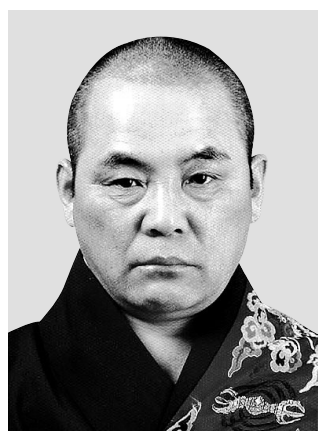
그러한 원력으로 우리 모두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서, 화쟁의 마음 길 열어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영위하도록 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체대비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이 아님 없음을 인지하고, 항상 만나는 이웃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부처님 대하듯 하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계이며, 정토세상의 실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심은 더욱 빛나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오셨으니 세상이 고해이기에 부처님의 오심은 더욱 빛나네. 탐욕과 성냄으로 얼룩진 사바의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한 불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남의 불행을 함께하고 나의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픔을 잠시 잊고 오늘은 우리 모두 환하게 웃으며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진흙 속에서서야 연꽃이 피는 것이니까요.

보시자획복(布施者獲福)이요
자심자무원(慈心者無怨)이며
위선자소악(爲善者消惡)이 고
이욕자무뇌(離欲者無惱)니라.

베푸는 이는 복을 받고 자비로운 이에게 원수는 사라지며 선을 행하면 악업이 녹아지며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없어지느니라.

자리이타의 등불을 켜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찬탄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먼저 네팔의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네팔과 일본의 대지진,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중동 IS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인간들이 막상 자연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테러와 전쟁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利他)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